

윤성원 제1차관, “한-터키 인프라 협력 강화”

- 17일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 만나 인프라협력 강화 방안 논의 -

□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7일(목), 터키를 방문하여 엔베르 이스크루트(Enver Iskurt)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과 면담하고,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□ 특히,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와 터키 인프라투자청(AYGM)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*을 체결하였다.

* (일시장소) 3.17(목) 16시, 터키 교통인프라부 회의실
(협약주체) KIND 사장(이강훈), 터키 인프라투자청장(알신 아이건, Yalçın EYİGÜN)

○ 양국 간 유망 인프라 사업 발굴 및 공동 사업개발 등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“한국기업들과 터키 건설업체들이 협력하여 유라시아 해저터널, 차낙칼레 대교 등 대표적 국책 인프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”고 강조하며,

○ “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, 양국 간 상생 발전의 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
□ 터키 교통인프라부 이스크루트 차관은 “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,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”며,

○ “향후 터키에서는 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철도, 운하, 항구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, 한국과 터키의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이에 대해 윤 차관은 “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, 철도, 항구, 운하 등 인프라 분야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”고 공감하며,
 -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의 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과의 업무 협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, 한국 정부가 터키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화답했다.

- 한편, 한국과 터키 건설업체들은 터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, 중동 지역 등에서 약 26억불 규모의 합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.

2022. 3. 18

국토교통부 대변인